신심명 법문 다라니 독경에 흥겨운 법석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
외호대중 날마다 기도정진
봉은국악합주단 문화공연
자발적 수행동참 열기 고조

천막결사 용맹정진이 진행되고 있는 위례 상월선원의 천막법당에서도 기도정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묘적사 주지 환풍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다라니기도.

적막할 만큼 조용했던 비닐하우스 천막법당에 둥둥둥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가 울려퍼졌다. 동안거 수행정진 4일째인 지난 14일,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산자락에 자리잡은 상월선원에 한바탕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서울 봉은사가 주지 원명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과 종무원, 신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회를 연 것.

동안거 입재 법회를 빛낸 '봉은국악합주단'의 공연은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여느 산사의 선방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 이날도 연출됐다. 수능일인 이날 기습 추위가 찾아와 법당 밖은 찬바람이 불었지만, 흥겨운 음악으로 실내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국악으로 듣는 자이브 음악으로 시작해 신명나는 찬불가와 민요, 사찰을 상징하는 봉은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치열하게 수행 중인 9명의 스님들에게 힘찬 기운을 불어넣었다.

신나는 국악한마당에 신도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선원 정진대중들을 응원했다. 최은주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은 "임시로 만든 천막 안에서 14시간 이상을 정진하고 있다니 놀라우면서도 환희심이 난다"며 "신도들도 덩달아 신심이 나고 훌륭하게 정진을 하실 수 있도록 매주 꼭 방문할 것"을 다짐했다. 봉은사 신도 양숙희 씨도 "입재식 때 와봤는데, 별 탈 없이 계신지 궁금해서 또 왔다. 신실한 기도로 스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 앞서 오후2시부터 두 시간 가까이 다라니기도와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의 소참법문이 있었다. 기도 집전을 맡은 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스님은 마치 목탁과 하나가 된 듯 했다. 휘모리장단으로 빠르게 법구를 두드리며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을 신도들과 함께했다.

주지 원명스님은 이날 "스님들이 회향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주 힘을 실어줘야 하고 불교가 더 건강해 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밝혔다. 주지 스님은 법문 말미, 승찬스님의 '신심명(信心銘)' 강의를 매주 펼칠 것을 예고하며 더욱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흥겨운 음악과 독경 소리가 흐르는 천막법당과 달리,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상월선원은 고요했다. 스님들을 볼 수 없었지만,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를 찾겠다"는 대중과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듯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검은 천막 위로 대형 비닐이 덧씌워졌다는 점이다. 지난 13일부터 제법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선원 천장과 곳곳에 비가 그대로 들이쳤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정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동안거 기간 동안 재가자들의 자발적인 정진 동참 열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매일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3시30분까지 기도가 진행되며 토요일에는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용맹정진이 진행된다.

하남=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유튜브 상월선원 구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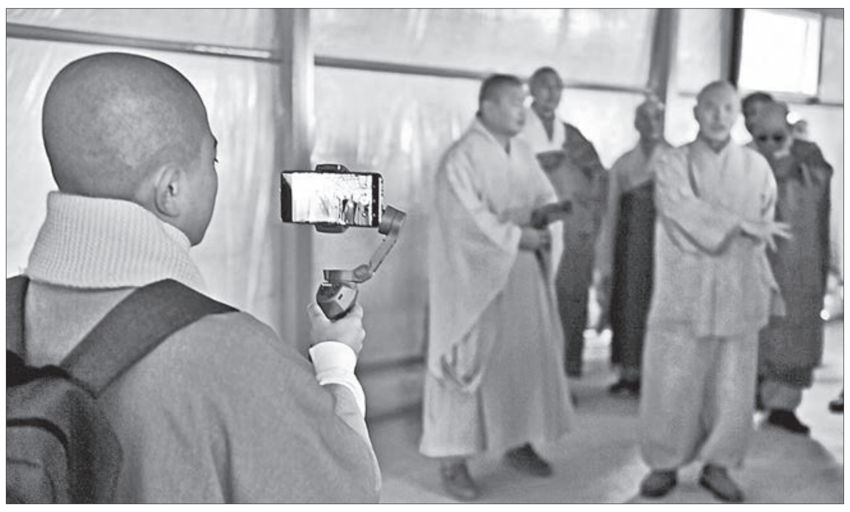
천막결사 정진현장 생생 소개
ASMR 도시락먹방도 준비 중

혼자 하는 수행은 없다고 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선방에서 묵언하며 하루 한 끼만 먹고 씻지 않은 채 화두를 든 위례 상월선원 수행자들 곁에는 든든한 외호대중이 있다. 천막법당에서 기도 정진하는 스님과 불자들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는 유튜브 '천막결사 상월선원(https://www.youtube.com/channel/UC3DpTwPK0VoeqjI7r5WcY0g)'이 대표적이다. 어떤 매체보다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홍보팀에는 정오스님을 비롯해 4명이 활동 중이다.

'천막결사 상월선원'은 지난 1일 첫 활동을 개시했다.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는 상월선원 찾아가는 법을 알려줬는가 하면, 결제를 앞둔 스님의 심경을 인터뷰를 생생하게 전해 화제를 모았다. 결제 후에는 9명 스님을 만날 수 없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할까.

정오스님은 "천막법당 기도에 동참하는 사부대중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천막법당 기도정진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ASMR, 상월선원 대중 스님들에게 하루 한 번 제공되는 도시락 먹방도 준비 중이다. 상월선원 결사대중의 원력과 발심은 장중하고 엄중하지만, 유튜브 콘텐츠 만큼은 누워서 편안하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스님의 운영 방향이다. 진솔하고 편안하게 스님과 불자들 모습을 다룸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가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스님은 말했다.



기획, 촬영까지 도맡은 상월선원 홍보팀 정오스님이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 김형주 기자

올 겨울 위례 상월선원에서 지내게 될 것 같다는 스님은 "천막법당에서 기도 중일 때 카메라가 다가가도 놀라지 말고 편하게 여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알찬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하며, 동영상 편집 재능기부자도 기다리고 있다. 구독과 관심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법우들과 소중한 인연 만들어요"

대불련 대경지부 템플스테이
지부 활성화 회원 화합 도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의성 고운사 템플문화관에서 지부 활성화와 청년포교를 위한 추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삼법인과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주최하고 제16교구본사 고운사가 주관한 '2019 대불련 대경지부 추계 템플스테이'는 경북대, 영남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안동대, 대구대 등의 대불련 대경지부 동문 회원들과 재학생 30여명이 참석해 사찰예절 습의, 타종체험, 컵등만들기, 108염주꿰기와 힐링캠프 '대불련고민상담소', 수계식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서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은 "우리들의 현재 마음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대학생 불자 포교의 선봉에 선 여러분들이 법우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배경남 대경지부장(경북대 일반사회교육학과)은 "대불련 대경지부는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지부를 활성화시키고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daegu@ibulgyo.com

"전두환 前 대통령 참회 촉구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5·18관련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를 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이제 참회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스님)는 지난 12일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인근에서 '5·18 희생자 극락왕생 및 참회 촉구 기도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기도회에서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지몽스님과 위원 현성스님은 천수경, 영가축원, 아미타 정근 기도를 30여 간 진행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부위원장 지몽스님은 현장 발언을 통해 "전두환 씨는 더 이상 업을 지어 세세생생(世世生生) 고통 받지 말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참회해야 한다"며 "5·18 민주 영령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불교계도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노동위는 앞서 지난 5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희생자 극락왕생발원 추모 기도회'를 봉행하며 역사의 아픔 치유에 앞장선 바 있다.

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

'HOPE 명상' 지도자 연수

포교원·사단법인 동련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 어린이청소년위원회와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 스님)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함께해요 HOPE 명상 I'm BUDDHA'를 주제로 제67차 전국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HOPE는 Happy(명상으로 나는 행복해집니다), Owner(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Play(명상은 놀이입니다), Easy(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의 줄임말이다.

연수회는 모집 인원 140명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왜 명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강의와 체험학습이 골고루 진행됐다. 불교아동교육연구소는 '지금 내가 있습니다'라는 강의와 '아임 붓다'를 통해 놀이로 쉽게 명상을 경험하도록 했다. 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혜주스님은 '여기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명상 효과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실시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박선영 치유상담대학원대 교수의 '춤 마인풀 무빙 명상'으로 몸과 마음이 이완 되는 순간을 경험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치사에서 "여러분들이 포교요, 미래로 만들어 가는 주역들인 만큼, 포교원도 일선에서 정진하는 것에 부응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련 이사장 신공스님도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아임붓다가 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공 고

제63차 원로회의

제63차 원로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원로회의 의원 스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불기2563(2019)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
- ■안 건 ·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 · 기타사항
- ■문의처 원로회의 사무처 (02-2011-1865)

불기2563(2019)년 1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 민

등 원 공 고

다음 승려에 대하여 등원공고 하오니 해당 등원일시까지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본 등원에 불응하시면 총무원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징계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 음–

번 호	법 명	성 명	승적번호	등원일시
1	지철	임종율	0168-1010	2019.12.02(월) 오전10시
2	석안	원효숙	0991-0145	2019.12.02(월) 오후 2시
3	강설	황재용	0284-8	2019.12.03(화) 오전10시
4	덕상	이성영	0176-1314	2019.12.03(화) 오후 2시
5	원인	한태순	1273-254	2019.12.04(수) 오전10시
6	설조	이설조	0548-3	2019.12.04(수) 오후 2시
7	하림	지문옥	1386-86	2019.12.05(목) 오전10시
8	덕중	이정훈	0204-204	2019.12.05(목) 오후 2시
9	예진	이예욱	0998-067	2019.12.06(금) 오전10시

불기2563(2019)년 1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성효